



‘글로벌대학30’ 광주·전남 대학들 본지정 ‘총력전’



불 밝힌 파리 에펠탑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불을 밝힌 채 전 세계에서 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센강과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에서 개최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市·道, 최종 실행계획서 취합 오늘 교육부에 제출 내달 대면평가...9월 초께 본지정 10곳 발표 ‘촉각’

글로벌대학30 실행계획서가 26일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예비지정 대학들이 지자체와 함께 최종 본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5일 광주·전남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대학의 광역지자체가 해당 대학과 지역 산업체 등이 함께 마련한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26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전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를 포함한 대구·대전보건대 연합 등 2곳이, 전남지역에서는 국립목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등 2곳이 예비지정돼 있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돼 올해 자격을 유지하며 재도전에 나선 전남대학교는 광주·전남을 잇는 초광역 메

가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CNU 글로벌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해 지속가능성 확보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남대와 광주보건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대구·대전보건대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학과 중심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 모델로 보건의료분야 아시아 최고 전문대학 도약을 위한 방안을 실행계획서에 담고 있다. 보건대 연합은 대구시가 대표로 실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보건대연합은 동·서·남 지역을 넘어 초광역으로 연합한 유일한 곳으로서 기존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서만 제출하면 최종 본지정 문턱은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전남지역에서 예비지정된 동신대 사립연합의 경우 이주희 동신대 총장이 혁신기획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진두지휘하면서 실행계획서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신대 연합은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시,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등 6개 전남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공공형 UCC-I-N-G 캠퍼스 구축을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실행계획서의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실현을 위해 세계 유일의 친환경 분야 연구센터 기반 무탄소 선박·그린 해양에너지 산업 혁신을 선도하며 전남도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

까지 실행계획서에 담았다.

목포대는 최근 전남도립대학교와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글로벌대학 30 본지정 대응 대학협력(TF)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대학이 최종 본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생 인구 감소 등 존재 위기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학자체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산업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실행계획서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해 오는 8월 중순 대면평가를 실시한 뒤 9월 초께 10개 대학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다이어지

지구촌 스포츠 축제 파리 올림픽 오늘 ‘팡파르’



2024년을 빛낼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이 26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30분)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막을 올린다. ▶관련기사 16면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이자 세번째로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를 슬로건으로 206개 회원국이 참가해 32개 종목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도쿄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양궁, 펜싱, 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 5-6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영 황선우, 배드민턴 안세영,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세계최강 남녀 양

206개 회원국 참가 32개 종목 17일간 열전 돌입 태극전사, 양궁·펜싱·배드민턴 등 금 5-6개 도전

궁 등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들의 활약이 관전포인트다.

광주·전남에서도 15명의 태극전사들이 효자 종목인 양궁과 펜싱을 비롯해 근대5종,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투혼으로 메달에 도전장을 던졌다.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 복싱 플라이급 임예지(화순군청)는 두 번째 올림픽에서 새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2016년 리우올림픽, 2021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세번째 올림픽 무대에 서는 펜싱 에페 강영미(서구청)와 2004년 아

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년 만에 사격 트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 이보나(부산시청)의 노장 투혼도 눈길을 끈다.

펜싱 에페 김재원(서구청),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의 신은철(더셀), 유도-48kg급 이혜경(광주교통공사), 수영 경영 자유찬(대구시청), 여자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혼합복식 정나은(화순군청), 펜싱 사브르 최세빈(전남도청), 수영 경영 김민섭(독도스포츠팀), 육상 세단뛰기 김장우(국군체육부대), 근대5종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스타탄생을 꿈꾼다. /박희중기자

2024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27일)	
배드민턴	한국시간	혼합복식 조별예선 B조 서승재·채유정 A조 김원호·정나은	오후 3:30 오후 10:40
여자 단식 조별예선	김기은	여자 단식 조별예선 C조 김기은	오후 9:50
유도	한국시간	여자 48kg 이하급 예선 라운드 / 결승(오후 11:00) 이혜경	오후 5:00
남자 60kg 이하급 예선 라운드 / 결승(오후 11:00)	김원찬	남자 60kg 이하급 예선 라운드 / 결승(오후 11:00) 김원찬	오후 5:00
펜싱	한국시간	여자 에페 개인 64강-8강 강영미, 송세라, 이예민	오후 5:00
남자 사브르 개인 64강-8강 구원일, 박상원, 오상욱		남자 사브르 개인 64강-8강 구원일, 박상원, 오상욱	오후 5:25
수영 경영	한국시간	남자 100m 평영 예선 최정환	오후 6:00
남자 400m 자유영 예선 김우민		남자 400m 자유영 예선 김우민	오후 6:00
탁구	한국시간	혼합복식 16강 임동훈·신유빈	오후 11:30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